

육아정책 소식

제2차 평가인증 결과 발표 - 보다 엄격해진 기준으로 제1차 시기에 비해 통과율 하락(68.4%)

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2차 지표를 적용한 평가인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. 이번 발표대상은 2010년 2월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으로 604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(통과율 68.4%). 제1차 평가인증(05~09)에는 참여한 어린이집의 통과율이 80.4%였던 것에 비하면 인증 통과율이 다소 낮아졌는데, 이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평가인증에서 지표를 고도화하고,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(73.33→75점)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보건복지부는 풀이하였다.

〈주요 변경사항〉

- (지표 고도화) 달성도가 높은 지표 상향 조정 및 유사항목 통합,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항목 신설(교수방법, 문제해결 및 호기심 장려)
- 평가인증 통과점수 상향 조정(73.33→75점)

1차 시행	2차 시행시기	비 고
- 40인 이상: 7영역 80항목	- 40인 이상: 6영역 70항목	- 항목 10개 축소
- 39인 이상: 5영역 60항목	- 39인 이하: 5영역 55항목	- 항목 5개 축소
- 장애아전담: 7영역 85항목	- 장애아전담: 7영역 75항목	- 항목 10개 축소

- (운영체계 개선) 참여자격 완화, 인증취소사유 합리화* 등
- (점수비중 조정) 자체점검 하향 조정으로 인증결과의 객관화 향상

구 분	반영 비율	구 분	반영 비율
자체점검보고서	25%	자체점검보고서	10%(15%p ↓)
현장관찰보고서	50%	현장관찰보고서	55%(5%p ↑)
심의위원회 의견서	25%	심의위원회 의견서	25%(유지)
총계	100%	총계	100%

- (지자체 역할 강화) 법적 준수사항 확인(11개 항목*), 참여설명회 주도
- 평가인증 참여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 확인은 지도점검 실적으로 인정

‘제2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’11~’15) 시안’ 발표 - 저출산·고령화 대책 “이렇게 달라집니다”

보건복지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‘제2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(’11~’15) 시안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 이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,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이번 2차 계획은 저출산·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었던 제1차 기본계획(’06~’10)에 대한 후속 계획으로, 맞벌이 가구,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,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 부족,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를 보완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,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.

제2차 기본계획은 “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”을 목표로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.

〈표 1〉 제 1,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비교

구분		1차 계획	2차 계획
저출산	주요대상	저소득 가정	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
	정책영역	보육지원 중심	일·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
고령화	주요대상	65세 이상 소득·건강취약 노인	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
	정책영역	소득보장, 요양보호	소득·건강·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
공통	추진방식	정부 주도	범사회적 정책공조